

홈 > 뉴스 > 뉴스 > 북미

NAKS, 예담 한복과 MOU

주말한글학교 행사, 발표회 등에서 활용

2016년 05월 07일 (일) 05:39:26

이석호 기자 ✉ dolko@hanmail.net



▲ 추민수 예담 한복 대표(왼쪽)와 최미영 NAKS 총회장.[사진제공=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최미영)는 “5월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예담 한복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담 한복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00여벌의 한복을 세계 곳곳의 한글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해 왔다. 직접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추민수 예담 한복 대표는 NAKS에 정기적으로 한복을 기증하기로 했다.

NAKS는 “앞으로 주말한국(한글)학교 행사와 발표회에 예담의 한복을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열리는 NAKS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도 한복을 주류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